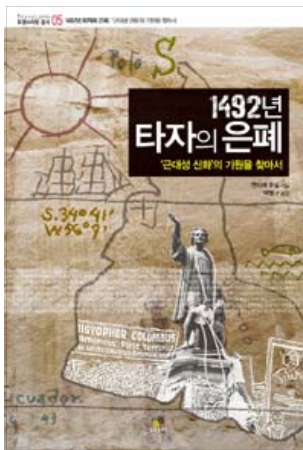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 의 기원을 찾아서



원제: El encubrimiento del otro : Hacia el origen del mito de la Modernidad(1992)

엔리케 두셀 (지은이) | 박병규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간일: 2011-05-20

ISBN(13): 9788976827531

271쪽 | 148*210mm

그린비 〈트랜스라틴 총서〉 시리즈의 다섯번째 책이다. 세계적 석학 엔리케 두셀의 대표 저작으로, 아메리카 대륙 ‘발견’ 500주년을 얼마 앞두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었던 강연을 책으로 엮었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에 유럽은 이슬람 세계의 변방에 불과했다. 콜럼버스의 '발견'으로 칭송받는 이 대 사건이후 유럽은 라틴아메리카 인디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타자'를 정복하고 그들의 차이를 은폐함으로써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감추어지고 있는데, 두셀은 1492년 이전의 세계지도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은폐된 이 역사를 밝혀내고 있다. 두셀은 1492년 이래 식민화된 민중, 세계 주변부(이른바 제3세계)의 민중인 '타자'의 희생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다. 이로써 객관화된 가치 그리고 익명의 상품으로 격하되어 서구의 근대화에 흡수되어 버린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처절했던 삶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라틴현대미술 저항을 그리다



유화열 (지은이)

출판사: 한길사

출간일: 2011-03-25

ISBN(13): 9788935662289

368쪽 | 188*128mm

라틴아메리카는 저항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발견했고, 현대미술과 아르테 포퓰라르와의 결합을 통해 식민지 지배 동안 미루어졌던 라틴아메리카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예술을 재창조하였다. 이 책은 아르테 포퓰라르, 멕시코 벽화운동을 다루고, 원시와 현대의 화학적 융합인 라틴현대미술을 조명해 본다.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



원제: 世界がキューバ医療を手本にするわけ

요시다 다로 (지은이) | 위정훈 (옮긴이)

출판사: 파피에(딱정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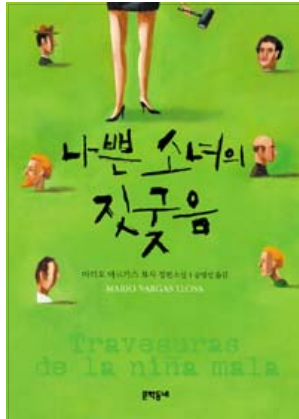
출간일: 2011-05-27

ISBN(13): 9788985901628

295쪽 | 223*152mm

쿠바를 떠올리면 독재자 카스트로, 부에나비스타의 선율, 찬란한 카리브 해의 태양과 살사댄스가 생각나기 마련이지만 쿠바는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의료강국이자 교육강국, 유기농업 강국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전문적 자료보다는 취재에 의거해 쿠바의료의 현주소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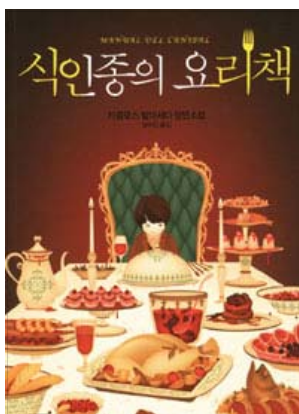
■ 나쁜 소녀의 짓궂음



원제: Travesuras de la Niña mala (2006)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지은이) | 송병선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2011-01-10
 ISBN(13): 9788954613637
 548쪽 | 188*128mm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모험심이 강하고 화려한 세계를 동경하는 '나쁜 소녀'와 그녀를 사십 년 넘게 사랑하는 '착한 소년'의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기였던 20세기 중반 이후의 다양한 세계 상황 속에 노련하게 녹여낸 작품이다.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좌절되는 1960~80년대의 페루, 유럽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던 1960년대의 파리, 히피 문화가 꽃핀 1970년대의 런던, 그리고 동양의 메트로폴리탄 도쿄까지, 바르가스 요사는 우리가 지나온 20세기 사회의 단면을 깊이 있으면서도 재기발랄하게 훑어내린다.

■ 식인종의 요리책



카를로스 발마세다 (지은이) | 김수진 (옮긴이)
 출판사: 비채
 출간일: 2011-05-31
 ISBN(13): 9788994343303
 280쪽 | 188*128mm

이 작품은 <예언자의 기도>로 스페인 최고의 문학상 중 하나인 '플라네타 상'의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카를로스 발마세다의 장편소설이다. 10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인기 레스토랑, 맛에 인생을 건 요리사들과 목숨을 거는 미식가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